

주말 쇼핑

'학습도우미' 전자사전

번역 기능까지 갖춘 실속형 인기

'올해는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는 자녀에게 도움이 될만한 선물은 뭐가 있을까?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영어사전 기능은 물론 동영상 재생 멀티미디어 기능까지 갖춘 다기능 전자사전이 단연 인기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 크게 오른 물가를 생각하면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다 기능도 다양해 자녀에게 필요한 제품을 선택하는 일이 쉽지 않다.

음악감상·동영상 재생도

광주신세계 이마트 관계자는 "다양한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멀티형 전자사전이 좋겠지만 가격이 부담이 되거나 자녀가 어리다면 핵심기능을 갖춘 실속형 전자사전이 좋다"고 조언했다.

◇똑똑해진 전자사전=최근에는 복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로 진화하면서 학습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영한·한영·영영 사전은 기본이며 원어민 발음을 지원된다. 최근에는 영·중·중·영 번역기능에다 중국어, 일어 등 10여 개가 넘는 외국어 사전이 수록되는 등 외국어 영역이 강화된 똑똑한 제품들도 많다. 여기에 음악 감상과 동영상 재생은 물론, 라디오 및 지상파 DMB 수신 애드 PDF 등 각종 문서 뷰어 기능도 갖췄다. 하지만 가격은 30만~40만원대로 비싼 편이다.

◇어떤 제품이 있나=샤프전자 'RD-EM1'에는 총 128개 사전이 수록돼 있으며 1천375개의 인터넷 수능 강좌도 무료로 지원한다. 가격은 34만~35만원(전자제품 전문점 기준)수준이다.

아이리버 'D35'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자를 포함한 37개의 사전과 브리태니커백과사전 등 109개의 콘텐츠를 내장하고 있다. 가격은 DMB 방송을 지원하는 제품은 36만~39만원선. 인터넷 강의를 지원하는 에듀버전 제품은 36만원대다.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사전 기능이 충실했던 전자사전도 좋다. 샤프전자 리얼터 세이 'RD-7500MP'와 누리안 'R9'은 9만원대로 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영어회화 등 총 55권의 사전이 수록돼 있으며 원어민 발음을 지원된다.

8만~9만원대 할인판매

◇지역 유통업체 할인행사 활용=지역의 유통업체는 신학기에 맞춰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이마트는 9만9천원대(샤프 RD-7500MP, 누리안 R9) 전자사전을 비롯해 전시상품(신상품 제외)을 할인판매 한다.

홈플러스 동광주점도 8만9천원대(샤프 9100MP) 전자사전을 판매하는 등 일부 상품에 한 해 2만~3만원에 누리노도 해주는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ju.co.kr



5일 오후 광주신세계 이마트 전자제품 매장에서 한 학생이 전자사전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새봄 사은 대축제

당신의 새봄을 아름답게 하는 특권- 현대백화점 복 선상품으로 누리보세요!